

사회적 고립 아동의 사회기술훈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A Meta-analysis of Social Skills Training for Socially Isolated Children

유 연 수*

Yoo, Yeon Soo

이 양 희**

Lee, Yanghee

ABSTRACT

Children who have problems in interacting appropriately with others typically have significant social skills deficits. Social skills training has become a primary intervention to improve the appropriate peer relationship or peer acceptance. Many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s have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on socially isolated children, however the findings from many studies investigating the effect of social skills interventions are various.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by using quantitative method of meta-analysis. Second, it was to review a various research in detail. Third, it was to provide the basis of planning a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these purposes, findings from 26 studies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social skills interventions for 624 socially isolated children (5-12 years) were analyzed.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the following : The pooled overall mean effect size(ES) was 1.11. On average, the pooled mean effect size(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research variables was large, meaning that the social skills intervention had a great effect and was socially important and necessary for socially isolated children. It would be recommended that social skills programs include appropriate target behaviors through multidisciplinary assessment process. This program should mainly focus on the improvement of prosocial behavior skills as well as reducing problem behaviors. For preschool children, over 50 minutes per session, two to three sessions per week, for a total of total over 20 sessions would be ideal. Posttest and follow-up need to perform for generalization and maintenance. Content of the program should be tailored to the developmental level as well as the interest level of the children.

Key Words : 사회적 고립아동(socially isolated children), 사회기술훈련(social skills training), 메타분석(meta-analysis)

* 접수 2001년 9월 30일, 채택 2001년 10월 27일

* 일산 햇살신경정신과 심리치료사, E-mail : yooys74@chollian.net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I. 서론

사회적 관계형성이라는 맥락속에서 유아기와 아동기에 그 초점을 맞출 때 중요한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 또래관계이다. 또래는 여러 상황에 따른 행동의 적절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나 집단의 규칙과 기준을 학습하는 사회화 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Gottman, 1977). 이렇듯 또래와의 관계속에서 다양한 자극을 제공받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즐거움을 얻게 되는 아동기에는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되는 상태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은 인기 없는, 또래수용도가 낮은, 사회적 수용도가 낮은, 충동적인, 공격적인, 부적응의, 거부되는, 무시되는, 소외되는, 위축된, 따돌림당하는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Moreno(1934)는 최초로 사회적 고립아동이란, 한 집단 안에서 친구로서 선택받지 못한 아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아동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또래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낮거나 또래 수용도가 낮은 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아동의 행동 특성은 인기 아동의 행동 특성 및 여러 변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되어 왔다. Gottman(1977), Parker와 Asher(1987)도 사회적 고립의 정의를 밝히면서 무시된 아동(neglected group), 즉 소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항상 외로운 아동들과, 그리고 거부된 아동(rejected group), 즉 공격적이고 또래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정미자(1995)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녀 아동의 공격적 행동과 위축행동을 포함하는 사회적 행동특성 및 학업성적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였다. 위의 연구들에서 사회적 고립아동의 행동 특성은 주로 공격 행동과 위축 행동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공격적 행동은 공격 행동, 비협조적인 행동, 그리고 심하게 떼쓰는 행동(acting-out)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위축적 행동은 극도로 사회적인 반주장성과 낮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사람들과의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행동이다. 결과적으로 공격적 혹은 위축적 양상을 보이는 아동들은 점차 또래 집단으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가진다.

O'Connor(1972)는 고립 아동과 사회적 기술과의 상관 연구에서 고립아동의 행동 특징은 사회적 기술과도 상관이 있으며, 고립 아동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 몇몇 연구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사회적 기술 때문에 또래 집단으로부터 수용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Asher, Oden & Gottman, 1977; Combs & Slaby, 1977).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의 부족은 아동의 고립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기술의 습득을 통해 고립 아동의 사회적 행동 및 또래 관계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은 그 특성상 매우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의 또한 다양하다. Asher, Oden과 Gottman(1977)은 사회적 기술을 각 아동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정확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 또래와 상호작용 관계를 맺고자 시도하는 행위라고 보았으며, McFall(1982)은 사회적 기술이란 인간이 효율적이고 유능하게 행동하는데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요

소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상의 기술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Gresham과 Elliott(1984)은 사회기술을 또래 수용, 긍정적 반응은 증가하고 처벌은 감소하게 되는 행동, 그리고 의미있는 사회적 행동과 관련되어 예측되는 행동과 같은 타당성에 관련된 세 가지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사회기술의 정의와 더불어 Gresham(1998)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상위 및 하위개념에 있어서 '사회적 유능성'이라는 상위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유능성이라는 상위개념의 영역으로 사회적 기술, 적응적인 행동, 또래관계 변인들을 모두 포함한 일반적인 규준과 개별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준거를 가지고 사회적 유능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기술의 특성들로는 상호작용적 친밀감, 상호작용적 반응, 개인적인 사회적 행동이나 특별한 환경에서의 기술과 행동을 들 수 있다. 양윤란(1996)도 사회기술을 사회적 유능성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기술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는 행동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 두 가지를 다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의 기술은 정신적 가치와 행동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민혜영, 1998). 이러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사회 기술에 관한 정의를 바탕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 기술 행동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Asher, Renshaw와 Hymel(1982)은 사회적 기술을 포괄적으로 아동의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발 기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 지속 기술, 그리고 또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갈등 조절기술로 나누었다. 사회 기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Ladd(1981)는 또래에게 질문하기, 효과적인 제안하기, 지지해주

기와 같은 사회적 기술이 또래수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Gresham과 Nagle(1980)은 참여, 협력, 의사소통, 지원, 인사, 요구, 정보제공, 활동참여, 정적강화 및 부적강화 행동을 또래수용과 연관된 사회적 기술로 보았다.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은 이후 적응행동과 관련되어 중요하게 작용되며, 사회기술의 습득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이다. 사회기술은 아동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대인관계에 요구되는 적절한 사회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은 아동의 또래수용도를 증진시켜 적응을 향상시키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Gresham, 1992; 문영희, 1998). Comb와 Slaby(1977)는 사회적 기술 훈련의 정의를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가치 있으며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기술훈련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훈련의 내용과 방법이 결정된다. 아동과 청소년,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아동에게 적용되는 경우에 다양한 사회기술들이 훈련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사회적 기술 기능의 결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식의 부족, 연습과 피드백의 부족, 단서의 부족, 강화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 행동 발현을 방해하는 문제 행동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사회기술훈련의 목표를 사회적 기술 획득의 증진, 사회적 기술 수행의 증가, 사회적 행동을 방해하는 문제행동의 감소를 들었고, 마지막으로 사회 기술의 일반화와 유지로 보았다(Gresham & Elliott, 1984; Gresham, 1998).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사회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로 그 내용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직접 교사나 토의, 모델링, 역할극, 피드백, 모방, 코

칭, 사회적 강화, 과제 부여, 놀이나 게임, 또래 증재 등을 사용한다. 이러한 기법들은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혹은 몇 가지 방법이 결합되어 적용되기도 한다(Gresham, Sugai & Horner, 2001).

사회기술훈련은 사회적 고립 아동에게 새로운 친사회적 행동의 습득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개선된 사회적 행동은 또래로부터 높은 긍정적 반응과 수용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가정(Asher, Oden & Gottman, 1977; Ladd & Mize, 1983)이 여러 연구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많은 수의 국외 연구에서 또래 평정을 통해 고립 아동을 선별한 후에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연구한 결과 모든 연구에서 사회기술훈련을 받은 고립 아동이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빈도가 증가하거나 또래 수용의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Hartup, Glazer & Charlesworth, 1976; Asher et al., 1977; Oden & Asher, 1977; Gresham & Nagle, 1980; Ladd, 1981; La Greca & Santorossi, 1980; Bierman, Miller & Stabb, 1987; Gresham, 1992, 1998; Forness & Kavale, 1999).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고립 아동(이윤옥, 1983; 박남주, 1991; 김경옥, 1993; 김태국, 1995; 김동운, 1998; 유재환, 1999; 원혜정, 2000)이나 주의집중 과잉행동 아동(김옥정, 1993; 김종한, 1995; 한은선, 1999) 및 수줍음이 많은 아동(강희선, 1998)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해 적용되었으며 그 효과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적용에서 그 결과의 효과면에서 과연 일반화까지 가능한 사회적·통계적 유의성이 어떠한가, 기존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의 결과들이 치우치지 않은(unbiased) 훈련과정을 거쳤는가, 또한 산

출된 결과가 타당하고 객관적인 것인가 등의 의문에서 그 명료성은 불투명하다. 적용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목표 및 시행절차와 방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다각적인 차원과 관점에서 각각의 연구를 분석해보았을 때 그 결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더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Quinn, Kavale, Mathur, Rutherford와 Forness(1999)의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 증재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각각의 증재훈련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으나 통합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의미성과 통합된 관점에서 가지는 유의미성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연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시도로서 메타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메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첫째, 기존의 다양한 연구결과들에서 제시한 사회적 고립 아동에게 적용된 사회기술훈련의 효과를 종합,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메타분석 방법을 통해 그 결과를 총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각 연구에 대한 분석적이고 체계적 탐색을 통하여 그 근거가 명확치 않은 사회기술훈련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사회적 고립 아동에게 적용된 사회기술훈련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셋째, 메타분석 방법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의 제한점인 적은 사례수나 한정된 대상자, 적용절차에서의 한계 등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기술

훈련에 관한 총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용성 있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고립아동의 사회기술훈련의 종합적인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사회적 고립아동의 사회기술훈련의 목

표에 관한 프로그램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사회적 고립아동의 사회기술훈련에서 사용된 평정도구의 평정자에 관한 프로그램 효과는 어떠한가?

넷째, 사회적 고립아동의 사회기술훈련에서 프로그램 적용 연령, 프로그램 실시회수 및 시간, 사후검사에 관한 프로그램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자료선정과 수집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아동의 사회기술훈련에 관한 결과를 메타분석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된 석사·박사 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포함한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대상논문의 검색은 1)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 서비스 전국대학 학술정보 통합검색, 2)국회전자도서관 및 3)국립중앙도서관의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2001년 2월 17일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키워드는 ‘사회성, 사회기술, 사회훈련, 또래, 고립, 무시, 거부, 따돌림’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수집절차 외에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련 논문 및 검색되지 않은 논문 중에서 관계 논문의 참고문헌 등에서 수집한 논문도 모두 대상논문에 포함하였다. 대상 논문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의 학

위논문실과 논문의 소장기관을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검색된 133편의 관련 논문 중에서 (1) 연구대상이 만 12세 이상인 논문 (2) 사회적 고립과 관련 없는 변인을 측정한 논문 (3) 전체 표본수 및 통계적 수치가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논문 (4) 연구설계에서 통제 집단을 사용하지 않은 논문을 제외한 29편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이 1편,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9편,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이 14편, 특수대학원 논문이 2편, 그리고 3편의 논문집에 실린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9편, 경기·인천 지역 2편, 충북 지역 2편, 광주·전라지역 3편, 부산·경남지역 5편, 경북·대구지역 7편, 제주지역 1편으로 분포되어 있다.

2. 자료분석 절차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아동에게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 1) 학술정보서비스 전국대학 학술정보 통합검색 <http://www.riss4u.net>
- 2)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 3)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간의 프로그램 적용 효과의 차이에 관해 다루고 있는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연구들에서 연구문제를 정리하고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유도하고 결론을 모색하는 메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결과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의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자료 수집과정을 통해 선정된 29편의 분석 대상 논문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정리하였다. 대상논문에서 수집한 기초적인 정보로는 각 연구들의 저자, 연도, 연구설계방법, 대상특성에 관한 정보(장애유형, 연령, 성별 등), 표본수, 집집방법,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내용, 평정방법, 평정자, 프로그램 적용기간(횟수, 시간), 집단크기, 실행장소, 가외변인 등으로 나누어 각 대상논문별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류 및 정리하였다.

각 연구별 기초 정보수집 과정이 끝난 다음 단계로 각 대상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연구결과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각 논문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결과의 평균, 표준편차 및 t , F , χ^2 등의 값으로 제시된 통계량들을 모아 정리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 얻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별 범주 목록 및 전체적인 연구별 정리 목록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프로그램 적용 효과의 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메타분석 방법 중에서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효과크기(Effect Siz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연구결과에 관한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해서 정리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 평균, 표준편차 및 t , F , χ^2 와 같은 통계량을 이용하여 이에 관한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는데 첫째는 연구결과에서 실험 및 통제 집단의 사전·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주어진 경우, 둘째는 실험 및 통제 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차이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주어진 경우, 셋째는 통계량이 주어진 경우로 나누어 각각을 계산하였다. 각 결과에 대한 효과크기 계산과 더불어 효과방향(+ 혹은 -)도 결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병합된 효과크기를 구하기 위해 개개 연구에 부여할 가중치로서 역분산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의 과정으로 각 연구별로 제시되어 있는 통계량들을 이용하여 대상연구별 전체 효과크기 및 각 변인의 범주별 정리 목록 준거에 따른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다음 단계로, 각 대상 연구의 효과크기 평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혹은 범주별로 병합된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병합된 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부분 범주별로 연구들의 프로그램 효과가 과연 동질적인가를 알아보는 동질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각 연구를 병합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효과의 검정통계량을 계산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아동의 사회기술훈련에 관한 대상 연구의 통계량 산출을 위하여 SPSS(versio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또한 종합적 프로그램 효과 여부 및 평균 효과크기, 대상 연구들의 동질성 검정 및 종합적인 검정통계량 산출 계산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는 의학, 간호학, 사회과학 연구의 메타분석법(송혜향, 1998)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를 SAS(version 6.12)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종합적인 프로그램 효과

총 29편의 대상연구의 총 사례수는 688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9세이다. 사회기술훈련의 평균 실시회수는 약 12회이고 평균 실시시간은 약 56분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사는 대부분이 3일 이전에 실시하였고 추후검사까지 실시한 연구는 4편에 불과했다. 각 연구의 효과크기는 최소가 $d=0.34$ 부터 최대가 $d=5.60$ 까지 비교적 큰 폭의 차이로 나타났다<표 1>.

첫번째 과정으로 29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의 종합적인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29편의 이질성 검정 결과 유의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각 연구결과를 평균과 비교하여 이질적이라고 판단되는 연구(이윤옥, 1984; 김경옥, 1993; 이성현, 1997)를 제외하고 동질적임이 증명($Q=40.69$, $df=25$, $p<.01$)된 나머지 26편의 연구만으로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전체 26편의 연구를 통해 산출된 효과크기의 사례수는 624명이며, 효과크기 평균은 $\bar{d}=1.11$ 이고 95% 신뢰구간은 0.94-1.28로 나타났다. 평균 효과크기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86.6%로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36.6%만큼의 프로그램 효과에 의한 향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과정으로 4)Fail-safe N에 관한 결과를 구하였다. Fail-safe N은 메타분석의 결과인 효과크기로부터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되어야 하는 논문 수를 산출하는 것이다(Orwin, 1983; 송혜향, 1998,

재인용).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118.3편의 연구가 더 추가되어야 결과적인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18편 이상의 관련연구를 추가하기 어려우므로 다음의 효과크기는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종합적인 결과

k	n	\bar{d} (%)	95% 신뢰구간		Q
			하한	상한	
26	624	1.11* (86.6)	0.94	1.28	40.69

Q : 동질성 검정($p<.01$)

* $p<.05$. ** $p<.01$.

2. 프로그램 목표

총 26편의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총 80개의 통계량에서 산출된 효과크기를 이용하여 각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목표별로 분류하여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프로그램 목표를 친사회성 향상, 행동적 특성 변화, 정서적 특성 변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었다. 친사회성 향상은 다시 사회성, 또래수용도, 또래지명도, 친사회적 태도, 친사회적 기술,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행동적 특성변화는 부정적 행동, 주도적 행동, 적응행동으로 나누었으며, 정서적 특성 변화는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고립감으로 나누어 각각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표 2>.

동질성 검정에서 친사회적 기술($Q=43.88$, $df=11$, $p<.01$)과 친사회적 행동($Q=29.73$, $df=7$, $p<.01$), 적응 행동($Q=23.15$, $df=6$, $p<.01$)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 목표는 모두 동질적인 것

4) $Nfs = k(\bar{d} - dc) / dc$ (\bar{d} : 평균효과크기, dc : 최소의 효과크기($dc=0.2$), k : 분석대상 연구논문 편 수).

으로 나타났다.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모든 프로그램 목표에 관한 효과크기에서 각각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 중 또래수용도 향상($\bar{d}=0.41$, $N=7$, $p<.05$)과 자아존중감 향상($\bar{d}=0.54$, $N=3$, $p<.05$)에서는 비교적 낮은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그 외 다른 하위 프로그램 목표에서는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또한 친사회성 향상에서 또래수용도와 정서적 특성 변화의 자아존중감에서는 보통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친사회성 향상을 프로그램 목표로 설정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프로그램 목표로서 또래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아동의 특성을 포함시킨 연구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2〉 프로그램 목표에 관한 효과크기

프로그램 목표	N	\bar{d} (%)	95% 신뢰구간		Q
			하한	상한	
친사회성 향상					
사회성	7	1.30* (90.3)	0.96	1.64	10.48
또래수용도	4	0.41* (65.9)	0.18	0.81	3.33
또래지명도	5	0.81* (79.1)	0.39	1.23	10.00
친사회적 태도	6	0.77* (77.9)	0.43	1.12	6.18
친사회적 기술	12	1.11* (86.6)	0.84	1.38	43.88**
친사회적 행동	8	1.98* (97.6)	1.65	2.32	29.73**
친사회적 반응	3	0.89* (81.3)	0.38	1.41	1.12
행동적 특성 변화					
부정적 행동	12	0.96* (83.1)	0.71	1.21	14.12
주도적 행동	8	1.13* (87.0)	0.75	1.51	14.43
적용 행동	7	1.38* (91.6)	1.09	1.66	23.15**
정서적 특성 변화					
자아개념	2	1.42* (92.2)	0.95	1.90	0.08
자아존중감	3	0.54* (70.5)	0.14	0.94	4.20
고립감	3	1.30* (90.3)	0.64	1.95	5.66

Q : 동질성 검정($p<.01$)
* $p<.05$. ** $p<.01$.

3. 평정자

총 26편의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80개의 통

계량으로부터 산출된 효과크기를 이용하여 각 연구에서 사용된 평정도구의 평정자를 각각 분류하여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사용된 평정도구의 평정자를 크게 또래, 자신, 교사, 검사자로 분류한 후 동질성 검정을 거쳐 각각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표 3>.

동질성 검정에서 평정자의 모든 항목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효과크기에서는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교사에 관한 효과크기($\bar{d}=0.64$, $N=6$, $p<.05$)가 중간 정도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큰 효과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정자에 관한 효과크기에서는 주로 또래나 자기 자신이 평정자가 된 사례수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평정자에 관한 효과크기

평정자	N	\bar{d} (%)	95% 신뢰구간		Q
			하한	상한	
또래	32	0.93* (82.3)	0.78	1.10	56.16**
자신	31	1.22* (88.8)	1.07	1.36	92.77**
교사	6	0.64* (73.8)	0.24	1.05	4.23
검사자	11	1.42* (92.2)	1.10	1.75	57.52**

Q : 동질성 검정($p<.01$)
* $p<.05$. ** $p<.01$.

4. 연령, 실시회수 및 시간, 사후검사

1) 연령

총 26편의 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를 바탕으로 사회기술훈련을 받은 대상을 연령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분포된 연령을 크게 전학령기, 저학령기, 고학령기로 나누어서 동질성 검정을 통한 각각에 관한 평균 효과크기의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동질성 검정에서 $p<.01$ 수준에서 모두 동질적인 것으로 증명되었으며 평균 효과크기도 각 연령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

다. 특히 전학령기 연령인 5-6세에서 큰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다음으로 고학년기, 즉 10-12세 아동에게 실시한 훈련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4〉 연령에 관한 효과크기

연령 (만)	N	\bar{d} (%)	95% 신뢰구간		Q
			하한	상한	
전학령기					
5세	4	1.66* (95.1)	1.11	2.21	3.42
6세	4	1.26* (89.6)	0.86	1.66	9.54
저학년기					
8-9세	4	0.82* (79.3)	0.37	1.28	5.34
고학년기					
10세	3	0.96* (83.1)	0.47	1.46	4.51
11세	4	1.20* (88.4)	0.80	1.60	0.34
12세	7	0.97* (83.3)	0.64	1.30	10.33

Q : 동질성 검정(p < .01)

*p < .05. **p < .01.

2) 실시회수

총 26편의 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를 바탕으로 사회기술훈련의 실시회수에 따른 프로그램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실시회수는 크게 총 실시회수와 주당 실시회수로 분류한 후에 동질성 검정 과정을 거쳐 각각에 관한

〈표 5〉 실시회수에 관한 효과크기

실시회수	N	\bar{d} (%)	95% 신뢰구간		Q
			하한	상한	
총 실시회수					
9회 이하	7	1.07* (85.7)	0.75	1.38	8.64
10-15회	13	0.97* (83.3)	0.72	1.23	23.76
16-20회 이상	6	1.43* (92.3)	1.08	1.78	3.92
주당 실시회수					
주 1-3회	15	1.06* (85.5)	0.84	1.28	18.63
주 4회 이상	11	1.18* (88.0)	0.91	1.45	21.63

Q : 동질성 검정(p < .01)

*p < .05. **p < .01.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동질성 검정에서 모두 동질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총 실시회수는 가장 많이 실시한 16-20회 이상의 효과크기($\bar{d}=1.43$, N=6, p<.05)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당 실시회수로 분석한 결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집중적으로 주 4회 이상 실시한 집단의 평균 효과크기가 좀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3) 실시시간

총 26편의 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를 바탕으로 사회기술훈련의 실시시간에 관한 프로그램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6>에 제시되어 있으며, 실시시간을 크게 총 실시시간과 회당 실시시간으로 나누어 동질성 검정을 거쳐 각각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동질성 검정에서 동질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총 실시시간에서 4-5주간 실시된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효과크기($\bar{d}=1.21$, N=11, p<.05)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회당 실시시간은 4-50분 정도 실시한 시간이 가장 평

〈표 6〉 실시시간에 관한 효과크기

실시시간	N	\bar{d} (%)	95% 신뢰구간		Q
			하한	상한	
총 실시시간					
1-3주	9	1.04* (85.0)	0.73	1.36	17.39
4-5주	11	1.21* (88.6)	0.93	1.48	12.87
6-8주 이상	6	1.05* (85.3)	0.74	1.36	9.61
회당 실시시간					
20-30분	7	1.08* (85.9)	0.73	1.43	11.23
40-50분	6	1.24* (89.2)	0.83	1.65	6.11
60-90분	6	0.95* (82.8)	0.65	1.25	14.73
90분 이상	3	1.02* (84.6)	0.52	1.52	1.23

Q : 동질성 검정(p < .01)

*p < .05. **p < .01.

균 효과크기($\bar{d}=1.24$, $N=6$, $p<.05$)가 크다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4) 사후검사

총 26편의 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를 바탕으로 사회기술훈련에서의 사후 검사에 관한 프로그램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동질성 검정에서는 모두 동질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후검사에 관한 효과크기에서 직후-1일 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bar{d}=1.21$, $N=11$,

$p<.05$)으로 나타났다.

<표 7> 사후검사에 관한 효과크기

사후검사	N	\bar{d} (%)	95% 신뢰구간		Q
			하한	상한	
직후-1일 후	11	1.21* (88.6)	0.96	1.47	16.65
3-4일 후	5	1.19* (88.2)	0.77	1.62	10.25
5-7일 후	6	1.05* (85.3)	0.69	1.41	7.68
2-4주 이상	4	0.78* (78.2)	0.34	1.23	3.10

Q : 동질성 검정($p<.01$)

* $p<.05$. $p<.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의 효과에 대해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적용의 종합적인 효과 및 다각적인 면에서의 훈련 효과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 아동에게 실시한 사회기술훈련의 결과가 미미한 효과에서부터 강력한 효과까지 그 결과와 범위가 다양하였다. 총 29편의 대상 논문에서 688명의 사회적 고립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의 다양한 결과들의 평균효과크기의 값은 산출되었으나 대상 연구들이 동질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동질성 검증에서 대상 논문들이 각기 이질적이라고 증명되었다. 이는 몇몇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는 사회기술훈련의 효과로 제시한 통계량이 평균적인 수치와 먼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연구들을 제외한 26편

의 연구들을 가지고 동질성 검정을 한 결과 동질성 가정을 만족할 수 있었으며 각 통계량에 근거한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제시된 다양한 결과들을 효과크기 값으로 변환한 결과, 평균 효과크기(\bar{d})가 1.11로서 Cohen(1977)의 분류방법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사회기술훈련의 적용이 고립 아동들에게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낮거나 수용도가 낮은 아동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회기술훈련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고립 아동에게 이러한 문제가 이후에 더욱 심각하게 발전되기 전에,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의의있는 작업이며 그 결과 또한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chneider(1992)와 Beelman, Pfungsten과 Losel(1994)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회성이 낮은 아동에게 적용한 사회기술훈련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사회기술훈련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는 결과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사회적 고립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기술훈련의 결과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각 훈련 목표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어떤 범주인지에 대하여 프로그램 목표 범주에 관한 훈련 효과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에서 고립 아동이 또래 아동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친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고립 아동을 위한 사회기술훈련의 목표를 부정적 행동의 감소보다는 사회성이나 친사회적 기술, 행동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 및 또래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에 관련된 내용, 자아개념이나 고립감을 변화시키는 내용을 위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의 감소보다는 친사회적 기술 등의 사회기술의 향상에서 프로그램 효과가 크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기술훈련의 목표에 기술습득, 기술수행, 문제행동 감소, 일반화 및 유지를 모두 포함시켜 그 중요성에 대해 주장한 Gresham과 그의 동료들(2001)의 연구와 같이 최근에는 사회기술의 향상과 문제행동의 감소 둘 다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목표 계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셋째, 사회기술훈련에서 이용된 평정도구의 평정자에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다수가 또래나 자기 자신이 훈련 효과를 평가하였다. 즉 사회기술훈련의 결과가 또래의 판단을 통해서, 혹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효과를 보고함으로써 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정자에 따른

훈련 효과의 비교에서 결과가 서로 이질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범주별 비교는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평정자 중에서 또래, 자기 자신, 교사 그리고 검사자가 모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 아동과 가장 가까이 있고 많은 시간 동안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평정자로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사용이 전무함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기술훈련을 받은 ADHD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에 관한 평가에서 교사와 부모가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는 한은선(1999)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다각적 차원에서의 논리적 평가가 프로그램 효과를 보다 강력하게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근거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연령, 실시회수, 실시시간, 사후검사 등)에 대한 효과크기도 산출해 보았다. 우선 사회기술훈련을 적용한 대상인 고립 아동의 연령은 만 5-12세의 범위로 나타났다. 사회기술훈련은 10-12세인 고학년기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되었으며 이 때가 또래관계가 활발해지는 시기이며 또래가 아동의 생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인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외의 사회기술훈련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들에서 적용연령 평균이 12세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Gresham et al., 2001). 그러나 훈련의 전반적인 효과는 고학년기보다 전학년기 아동에게 훈련을 적용했을 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전학년기 아동들이 고학년 아동들의 또래 관계보다 덜 안정적이며 주로 놀이에 관심을 두고 있다(조희숙 외, 1997)는 것에 근거하여 고학년 아동에게 적용된 사회기술의 개념이나 또래 중재 방법보다는 놀이에 바탕을 둔 훈련이 전학년기 아동들에게 더 긍정적인 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2세는 중재에 들어가기에 너무 늦은 나이이며 8세 이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Gresham과 그의 동료들(2001)의 견해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사회기술훈련의 실시회수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 실시회수는 10-15회가 가장 많았고, 주당 실시회수는 주 1-3회가 더 많았다. 그러나 그 효과면에서는 총 16-20회 이상 훈련을 실시한 집단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주당 실시회수에 따른 효과는 크게 차이하지 않았으나 주 4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립 아동을 위한 사회기술 훈련이 단 몇 번의 훈련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여러 회기에 걸쳐 꾸준히 실시되어야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회기술훈련의 실시시간에서는 총 실시시간은 4-5주간 실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회당 실시시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20-30분 동안 훈련을 실시한 경우가 더 많았다. 훈련 효과 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의미 있는 차이는 없지만 4-5주간, 40-50분 정도 실시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기술훈련의 계획시 실시시간의 경우, 대상아동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결과는 국외의 사회기술훈련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 Gresham과 그의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 평균 12주간, 30시간, 120분 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충분치 않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나 빈도와 강도면에서 여러 회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데 같은 맥락을 두고 있다.

사회기술훈련의 사후검사 실시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주로 훈련 직후나 다음날에 실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효과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훈련 직후로부터 2-4주 이상으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훈련의 지속 효과를 측정하는 사후검사 결과에서 훈련 효과가 점차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립 아동들이 사회기술훈련 이후에 자신이 습득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추후검사의 실시 여부 및 결과가 필요하지만 추후검사를 실시한 연구는 4편밖에 없었기 때문에 메타분석의 결과로서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기술훈련을 통한 또래관계의 향상 가능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즉 고립아동에게 적용한 사회기술훈련이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Quinn과 그의 동료들(1999), 그리고 Forness와 Kavale(1999)의 사회기술훈련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의 훈련 효과가 약하다는 결과와는 달리, Schneider(1992), Beelman과 그의 동료들(1994)의 사회기술훈련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훈련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는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 고립아동을 위한 사회기술훈련에 관한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에도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이 비슷한 명칭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나 각기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검증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기술이 결핍된 아동들을 위한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며,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적용된 다양한 방법을 결합하여 창의적인 내용의 훈련을 개발해 내고 시도해보는 과정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메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제안할 수 있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행동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평정도구를 이용한 다각적인 평가 과정을 실시한다. 둘째, 문제행동 감소를 포함하여 가장 향상이 용이한 친사회성을 주목표로 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셋째, 프로그램의 적용에서 효과적인 5-7세의 전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면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주 2-3회, 총 20회기 이상, 회당 50분 이상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적용 후 실시하는 사후검사 및 일반화·유지에 관한 추후검사까지 철저하게 실시한다.

사회적 고립 아동의 사회기술훈련에 대한 이상과 같은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 논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발표되거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연구 등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많은 논문들을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찾아내어 대상 논문에 포함시키는 과정은 메타분석의 결과가 그 분야 연구 결과의 총체적인 통합이라는 사실을 신뢰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므로 미발표된 연구들을 찾아내어 대상 논문에 포함시켜 효과 크기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각 범주별 비교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동질성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이질적

인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개의 대상 연구들을 제외하였다. 전체적인 동질성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몇몇 범주에서 이질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위 범주별 차이를 비교하기가 곤란하였다. 대상과 프로그램 내용이 광범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문제로서 좀 더 세분화된 대상과 프로그램에 관한 결과를 도출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논문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검색된 논문은 총 29편으로 주로 학위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 메타분석 연구의 대상 논문들을 살펴보면 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이 많은 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회기술훈련에 관한 연구의 양적인 면에 있어서의 결핍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전문적인 연구가 많이 미흡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이 훈련 효과와 관련하여 더욱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관련된 더욱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메타방법론은 기존의 양적 접근 방법과 더불어 연구분야에 관련된 질적 분석을 통해 전반적 통찰이 가능한 연구방법이다. 특히 메타방법론은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경험과 폭넓은 관심으로 기존의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대상연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통계적 수치로만 병합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질적 분석을 겸비하면 관련 분야에 대한 더욱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선(1998). 인형놀이를 통한 사회성훈련이 아동의 수줍음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옥(1993). 사회적 기술훈련이 고립 아동의 또래 자아개념과 중요인물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효성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운(1998). 자기교시의 사회적 기술훈련을 통한 고립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대인불안 감소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옥정(1993).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주의집중결핍성 과잉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종한(1995). 주장훈련 프로그램이 국민학생의 공격적 행동감소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국(1995).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국민학교 고립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대인불안감소에 미치는 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영희(1998). 학령기 아동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민혜영(1998).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과 개인 내적변인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남주(1991). 사회적 기술훈련이 고립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친구수용도 및 외로움 감소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혜향(1998). 의학, 간호학, 사회과학 연구의 메타 분석법. 청문각
- 양윤란(1996). 아동용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원혜정(2000). 고립아동의 또래수용도와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을 위한 사회성 기술훈련의 효과.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재환(2000).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고립학생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옥(1983). 고립아동의 사회적 기술훈련을 통한 또래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자(1995). 아동의 또래수용도와 관련변인간의 인과모형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희숙 외 9인 공저(1997). 아동발달심리. 서울 : 학지사.
- 한은선(1999). 주의력결핍 과다활동장애 아동의 사회적 기술훈련의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sher, S. R., Oden, S. L., & Gottman, J. M.(1977). Children's friendships in school setting. In L. G. Katz(Eds),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 Northwood. NJ : Ablex Publishing.
- Asher, S. R., Renshaw, & Hymel, S.(1982). Peer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In S. G. Moore & C. R. Cooper(Eds.), *The Young Child : Reviews of Research*, Vol. 3. Washington : NAEYC.
- Beelman, A., Pflingsten, U., & Losel, F.(1994). Effects of training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 A meta-analysis of recent evaluation studie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260-271.
- Bierman, K. L., Miller, C. L., & Stabb, S. D.(1987). Improving the social behavior and peer acceptance of rejected boys : Effects of social skills training with instructions and prohibi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2), 194-200.
- Cohen, J.(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 Sciences*. N.Y. : McGraw-Hill.
- Combs, M., & Slaby, D.(1977). Social skills training in children. In a Kazdin & B. Lahey(Eds.), *Advances*

-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N. Y. : Plenum Pres.
- Formess, S. N., & Kavale, K.(1999). Social skills as a primary learning disability : A note on problems with ICLD diagnostic criteria. *Learning Disabilities Research and Practice*, 6, 44-49.
- Gottman, J.(1977). The effects of a modeling film on social isolation in preschool children : A methodolog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5, 69-78.
- Gresham, F. M.(1992). Social skills and learning disabilities : Causal, concomitant, or correlational. *School Psychology Review*, 21, 348-360.
- Gresham, F. M.(1998). Social skill training : Should we raze, remodel, or rebuild? *Behavioral Disorders*, 24, 19-25.
- Gresham, F. M., & Elliott, S. N.(1984).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of children's social skills : A review of methods and issues. *School Psychology Review*, 13, 292-301.
- Gresham, F. M., & Nagle, R. J.(1980). Social skills training with Children Responsiveness to modeling and coaching as a function of peer orient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718-729.
- Gresham, F. M., Sugai G. & Horner R. H.(2001). Interpreting outcomes of social skills training for students with high-incidence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67(3), 331-344.
- Hartup, W. W., Glazer, J. A., & Charlesworth, R. (1976). Peer reinforcement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38, 1017-1024.
- La Greca, A. M., & Santorossi, D. A.(1980). Social Skills training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 A behavioral group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220-227.
- Ladd, G. W.(1981). Effectiveness of a social learning method for enhancing children's social interaction and peer acceptance. *Child Development*, 52, 171-178.
- Ladd, G. W., & Mize, J. A.(1983). Cognitive-social learning Model of social-skill Training. *Psychological Review*, 90, 127-157.
- McFall, R.(1982).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skills. *Behavioral Assessment*, 4, 1-33.
- Moreno, J. L.(1934). "Who shall survive?" : A new approach to the problem of human interrelations. Washington, D. C. : Nervous and Mental Disease Publishing Co.
- O'Connor, R. D.(1972). Relative efficacy of modeling, shaping and the combined procedures for modification of social withdrawa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9, 327-334.
- Oden, S., & Asher, S. R.(1977). Coaching children in social skills for friendship making. *Child Development*, 48, 495-506.
- Orwin, R. G.(1983). A fail-safe N for effect size in meta-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8, 157-159.
- Parker, J. G.,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Quinn M. M., Kavale K. A., Mathur S. R., Rutherford R. B., JR., & Forness S. R.(1999). A Meta-Analysis of Social Skill Interventions for Students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7(1), 54-64.
- Schneider, B.(1992). Didactic methods for enhancing children's peer relations : A quantitat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363-382.

분석대상논문

- 김경옥(1993). 사회적 기술훈련이 고립아동의 또래 자아개념과 주요인물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하(1991). 국민학교 아동의 부적응 행동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경(1991). 수줍어하는 아동을 위한 자기표현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균(1996). 국민학교 아동의 부적응 행동감소를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 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애(1989). 게임을 통한 고립아동의 사회성훈련의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국(1995).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국민학교 고립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대인관계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황용(1988). 고립아동의 급우관계형성을 위한 사회 기능훈련의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남주(1991). 사회적 기술훈련이 고립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친구수용도 및 외로움 감소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은희(1987). 심성개발훈련이 부적응 아동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창열(1995). 사회성 훈련이 고립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보라(1999). 협동놀이 프로그램이 고립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현옥(1992). 인형극과 역할놀이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광식(1999). 자기표현훈련이 고립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점숙(1992). 또래의 사회적 강화가 유아의 고립행동 수정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원혜정(2000). 고립아동의 또래수용도와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을 위한 사회성 기술훈련의 효과.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수(1997).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급내 소외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현(1997). 자기표현훈련이 소극적인 아동의 자기개념 형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운옥(1984). 고립아동의 사회적 기술훈련을 통한 또래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운옥(1989). 사회적 수용도가 낮은 유치원 아동의 교칭과 모델링 전략을 통한 사회적 기술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여전 논문집, 8, 119-160.
- 이운옥(1992). 또래관계기술 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의 사회성 증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운옥(1993). 유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또래관계 기술지도 프로그램의 타당성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발전, 12, 25-55.
- 전지현(1995). 놀이 중심의 주장 훈련이 국민학생의 부끄러움 수준과 주장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광영(1993). 정서 부적응아의 사회성 개선 방법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선(1995). 또래중재 훈련을 통한 유아의 사회성 증진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정일호(1990). 국민학생을 위한 부끄러움 극복 프로그램의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허금순(1999). 자기존중감 증진 훈련이 고립아동의 자기존중감과 사회, 정서적 고립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홍경아(1992). 고립아동의 또래수용도 증가를 위한 사회적 기술지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준표(1999). 또래개입, 집단강화, 행동훈련이 초등학교 학급에서의 또래수용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12(1), 1-31.
- 황청자(1991). 사회기능훈련이 고립아의 급우관계형성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